

2020년 2학기에 서울대 라틴아메리카 연구소와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에서는 라티노 관련 주제로 줌 강연을 4회 개최합니다. 7월, 10월 강연은 '이민/난민' 주제로, 9월, 11월 강연은 '경계문화' 주제로 진행합니다. 강연에 앞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1시간 내외의 사전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미나용 줌 링크는 추후 메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해외학자 온라인 강연 시리즈: 라티노 1강

**제목:** "경제 이주자와 소속의 경계 (The Economic Migrant and the Boundaries of Belonging)"

**일시:**

2020년 7월 29일(수) 오후 6:00 (PST, Pacific Standard Time, 태평양 표준시-미국 및 캐나다)

2020년 7월 30일(목) 오전 10:00 (KST, Korea Standard Time, 대한민국 표준시)

**강연 줌 링크:**

회의 ID: 919 0899 2805

**Invite Link**

<https://snu-ac-kr.zoom.us/j/91908992805>

**강연자:** 캐서린 라미레스 (Catherine S. Ramírez) (UC Santa Cruz, Associate Professor of Latin American and Latino Studies)

**강연내용**

경제 이주자(**Economic migrant**)란 경제적 필요 때문에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을 뜻하며, 전지구적 남부(**Global South**) 출신의 빈곤층이 주로 이에 해당한다. 이주 연구와 인권 담론은 경제 이주자와 난민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경제 이주자를 드리머(**Dreamer**), 즉, <외국인 미성년자를 위한 개발, 원조, 교육 법안 (약칭 DREAM 법안)>의 수혜자들과도 구분한다. 젊고 뛰어나며 장래가 촉망되는 드리머들은 미국 사회의 기여자이자 가장 최근에 주목 받는 상징적 이주자로 추켜세워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제 이주자들은 국가의 부담이자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강연은 드리머와 경제 이주자의 양상을 병치하며, 사회적, 정치적 귀속과 그 자격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미국 내에서 경제 이주자들이 시장에서 핵심적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귀속(belonging)의 경계를 흐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결국, 규범적 이민자와 규범적 시민에 대한 믿음과 관심만으로는 정의롭고 공평하며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오히려 질문해야 한다. 시민권 여부를 떠나 이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이며 서로에게 어떤 빛을 지고 있는가?

## Abstract

The economic migrant is a migrant who moves out of economic necessity. Often, economic migrants are poor and from the Global South. In migration studies and the discourse of human rights, the economic migrant is distinguished from the refugee. In the United States, the economic migrant is also distinguished from the Dreamer, the would-be beneficiary of the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 Young, bright, accomplished, and promising, the Dreamer has been upheld as a contributor to the United States and as the latest iteration of the iconic immigrant.

In contrast, the economic migrant is perceived as a burden and threat. Juxtaposing the figures of the Dreamer and the economic migrant, this talk explores the relationship of deservingness to social and political belonging. I highlight the key role economic migrants play in the market as they blur the boundaries of belonging in the United States. Ultimately, I argue that a concern for and accountability to the normative immigrant and citizen are not enough in a just, equitable, and healthy society. Instead, we must ask, who are “we” and what do we owe one another, irrespective of citizenship status?

## 작가소개



- UC Santa Cruz 라틴아메리카학과 부교수 재직
- 인종, 이민, 시민권 연구 학자
- Assimilation: An Alternative History* (저서, 2020. 출간예정)
- Precarity and Belonging: Labor, Mobility, and Noncitizenship* (편저, 2021, 출간예정)
- The Women in the Zoot Suit: Gender, Nationalism, and the Cultural Politics of Memory* (2009) 외 다수

**주최**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서울대 라틴아메리카학연계전공,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경희대 스페인어학과